

단풍 물든 가을 산사 문화행사 만개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3일 다례제·음악회



설운도

구례 화엄사
10일 화엄 음악제
판소리·클래식 공연

해남 대흥사
16~17일 초의문화제
茶 체험·茶 유적지 순례

장성 백양사
23~25일 추야몽 축제
헤민스님 토크 콘서트



김종환

해남 미항사
24일 괘불제·음악회
민중화가 이종구씨 초대전



해남 대흥사서 열리는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단풍빛이 물들기 시작한 전남 곳곳 산사(山寺)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을 맞는다.

영암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도갑사는 3일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 10 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선국사의 업적과 풍수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 불공을 시작으로 오후 4시30분에는 국사전에서 도선국사에게 예를 올리는 다례제가 진행된다.

오후 7시 특설무대에서는 가수 설운도·이지호, 팝페라그룹 '라스페란자'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문의 061-473-5122.

10일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제10회 화엄음악제'가 열린다. '심금(心琴)'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제는 오후 6시부터 가을밤 지리산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된다. 보컬리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이바 비토바를 중심으로 한 트리오 '에비안(Evivan)', 판소리와 피아노가 만나는 '한승석·정재일',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국악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작곡가 나효신, 젊은 국악 듀오 '솔', 레바논 출신의 종합 예술인 디마 엘사예드, 일본의 타악 연주자 타카다 미도리 등 국내외 뮤지션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문의 061-783-7600.

해남의 대표적 천년고찰 대흥사는 16~17일 이틀간 '초의문화제'를 연다.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선(禪)과 차(茶)의 세계가 하나라는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주창하며 쇠퇴해져 가던 우리 차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199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해남 미항사의 괘불제.

이번 문화제는 '전통 차문화 체험', '떡차 만들기 체험학습', '다산과 초의가 함께한 차유적지 순례' 등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다기(茶器)·다구(茶具) 및 해남 특산물 전시·판매장도 마련돼 관광객들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지암에서는 '초의선사에게 올리는 헌다례'를 시작으로 행다(行茶) 시연 등 다채로운 차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제24회 초의상수

상자로 선정된 김기원(78) 한국차학회 고문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초의상'은 차 문화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문의 061-534-5502.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장성 백양사는 23~25일 '추야몽(秋夜夢) 축제'를 개최한다. '가을밤의 꿈'이라는 의미를 지닌 '추야몽'은 매년 백양단풍축제와 함께 열고 있다.

첫날인 23일 오후 2시 해남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수안스님의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24일 오후 2시에는 '국악한마당'을 연다. 25일 낮 12시에는 한국 사찰음식 대표 전문가로 평가 받는 정관스님(천진암 주지)이 참여한 사찰 음식 시연 및 향연이 마련돼 사찰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가수 김종환, 김성, 강민 등이 출연한 산사음악회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1-392-7502.

해남 미항사에서는 24일 '제16회 괘불제 그리고 미항사 음악회'가 펼쳐진다. 매년 가을 열리는 불교종합예술제인 '괘불제'는 이날 오후 1시 괘불탱화(보물 1342호)를 모시는 괘불이운을 진행한다. 괘불탱화는 1년에 단 한번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또 '만물공양', '두레상 한술밥'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6시부터는 이경선 서울대 음대 교수 가이그는 '비르투오지(Virtuosi) 그룹'을 초청해 음악회를 연다. '비르투오지'는 로시니의 '코라레 No.3',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2악장 등을 들려준다.

이와함께 미항사 자하루에서 31일까지 민중화가 이종구씨의 초대전이 열려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61-533-35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흥에 이청준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9~10일 문학제 개최

장흥에 작가 이청준의 문학을 기리는 문학관 건립이 추진된다.



30일 장흥군과 이청준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장흥 출신으로 현대 소설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미백(未白) 이청준(1939~2008)을 기리는 '이청준문학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9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제7회 이청준 문학제' 첫날 장흥군민회관에서 건립추진위원회 발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월 23일 이청준기념사업회가 법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문학관건립과 작가의 기념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고문단 19명 등 모두 66명으로 구성됐다. 김석중 이청준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추진위는 문학관을 전시보다 연구 중심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하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과 광주에서는 이청준의 문학적 성취와 작가를 기리는 문학제도 성대하게 열린다. 첫날(9일)에는 작가가 석좌교수로 재직했던 순천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전야행사가 펼쳐진다. '제자들이 그리는 이청준'을 주제로 영상, 연극, 낭송, 회고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생가와 가까운 이청준문학지리(회진면 진목리 갯나들)에서 작가를 회고한다. '이 가을에 만나는 이청준'을 주제로 회고와 덕담, 판소리 등이 펼쳐지며 작가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다.

오후에는 이청준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광주(서중과 일고를 졸업함)로 이동해 그의 문학의 어제와 오늘의 '흔적'을 둘러볼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전당에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구축되는 '이청준 문학 아카이브' 작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트그룹 '소나무' 25회 정기展

1~7일 양림미술관 12명 작가 참여



정경애 작 '실물백-정조'

아트그룹 '소나무'가 양림미술관에서 1~7일 제25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영일·류재용·안진성·안태영·오창록·위진수·장용훈·정경애·조규철·조선아·조현수·조술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약 50점을 선보인다. 김영일 작가의 'Forgetting-City Life' 시리즈는 쇼윈도에 설치된 마네킹 등을 통해 현대인들의 고독을 표현하고 있다. 또 노란색 꽃잎이 화폭을 뒤덮은 류재용 작가의 작품 '산수유'는 봄의 정취와 따뜻한 느낌을 주며 조현수 작가의 '그리운 날'은 파도 치는 해변 위에 추억기와 나비, 꽃무늬 의자 등을 배치해 지난 여름 바캉스를 떠올리게 한다.

'소나무'는 지난 1997년 국제 문화교류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당시 20~30대 젊은 작가들을 주축으로 발족했으며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총 27차례의 전시를 열었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SINCE 1990

홍스케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